



| | |
|--------------|---------------------|
| 제목 | Persian Sufi Poetry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Routledge |
| 발행일 | 1997. 4. 20. |
| 저자 | J. T. P. de Bruijn |
| 출판국가 | 영국 · 미국 |
| 페이지수 | 228 |
| ISBN 또는 ISSN | 978-0700703128 |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 수피의 신비주의적인 전통과 관계있는 주제들을 이슬람 수피 신비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시인들의 시를 통해 페르시아의 수피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입문서이다.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 책은 페르시아 고전 시들에 나타나는 신비주의적 색채를 부각시킨다. 수피즘과 문학 사이의 상관성을 중요시하는 페르시아 신비 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다음 풍자시와 사랑의 시, 상징적인 서사시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오마르 하이얌과 사디, 아타르 등의 짧은 경구를 대상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금욕주의적인 신비주의가 주로 다루며, 제3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랑의 시를 다룬다. 특히 제3장에서 사랑 시의 역사와 사랑 시에서 가잘이 차지하는 비중과 범위, 가잘의 신비주의적 특징 등을 언급하는데, 그 중심에 하피즈가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신비주의 대가 내지 스승들과 이야기꾼들이 소개된다.

페르시아 중세 시의 특징은 수피즘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피즘은 인간과 신에 대한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전자와의 사랑이 후자와의 사랑을 위한 전제로, 후자에 대한 사랑이 전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 구현된다고 본다. 사랑에 관한 한 수피즘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도 없다. 하지만 이 책에 수록된 수피 시인들의 시를 형식에 맞게 감상하다보면 페르시아 수피 시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